

# 변화나 안정이나...민주당 vs 무소속 맞대결

## 6·3 지방선거 격전지

〈6〉진도군수

이재각 “新진도 변화·체질 개선” 강조  
軍장성 출신 여당 지원 발판 세 걸립  
김희수, 행정연속성 앞세워 재선 도전  
‘외국인 여성’ 발언 논란 극복 관심사



더불어민주당 이재각 진도군수 후보가 지난 24일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칠성사 산사음악회에서 유권자들을 만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이재각 후보 측 제공>

6·3 지방선거 진도군수 선거는 현직 프리미엄을 안은 무소속 김희수 후보와 이에 맞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각 후보의 맞대결로 펼쳐지고 있다.

양 후보 모두 공직자 출신 경력을 강조하며 지역 발전 적임자라는 점을 고리로 표심을 다지고 있다.

군수 재직 시절 ‘외국인 처녀’ 수입 발언 등으로 논란을 빚었던 김희수 후보가 이를 극복하고 재선 가도에 성공할지, 여당의 지원을 등에 업은 이재각 후보가 새롭게 균형을 이끌어갈 주인공이 될지 지역민의 선택이 주목된다.

진도고등학교와 3사관학교를 졸업한 이재각 후보는 기무사 기무부대장, 2차장 등을 역임한 뒤 2015년 육군 준장으로 예편했다. 충북지방병

무정장을 지냈으며 현재 민주당 전남도당 부위원장직을 맡고 있다.

행정·안보 전문가인 이 후보는 안정적 조직 운영 능력을 토대로 진도의 미래를 위한 변화와 체질 개선을 강조하며 민심 공략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후보는 ▲국립김산업 진흥원 유치 ‘김 R&D 허브’ 구축 ▲진도 팻·진도개 글로벌 페스티벌 개최 ▲RNA 백신 R&D 특화산단 거점화 조성 ▲진도 조도면 해양정원 조성 ▲영암-진도항 국도 연결 등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재각 후보는 “인구소멸지역으로 분류되고 지역 경제는 활력을 잃어가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인 진도 발전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칠 각오로 출마했다”며 “진도에 사는 것이 자부심이 되는 시대, 새로운 진도의 부흥 시대를 만들기 위해 저의 신명을 다 바쳐 일할 것을 군민들에게 약속드린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석교중학교, 진도실업고등학교를 졸업한 김희수 후보는 1974년 공무원으로 임용돼 진도읍장, 민선 8기 진도군수를 지냈다.



무소속 김희수 진도군수 후보가 지난 23일 의동인 한마음대회에 방문해 유권자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김희수 후보 측 제공>

당초 민주당 소속으로 출마를 준비했지만 지난 2월 열린 광주·전남 행정통합 타운홀미팅에서 외국인 여성비하 발언 때문에 당에서 제명돼 무소속 출마로 방향을 선회했다.

김 후보는 20조원 이상의 민간투자가 예상되는 해상풍력 집적화 단지 지정과 이를 통한 바람연금 지급 청사진 등 4년 간 균형을 이끌어 이뤘던 성과를 바탕으로 중단 없는 진도 발전을 약속하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김 후보의 5대 공약은 ▲바람연금을 통한 지방

소멸·인구감소 대응 ▲살기 좋은 농어촌 조성 ▲대한민국 대표 문화도시 발돋움 ▲사각지대 없는 진도형 맞춤형 복지·의료서비스 실현 ▲전 국민이 화합·참여하는 균형 실현 등이다.

김희수 후보는 “지금 진도는 군민의 편익 증진과 미래 지향적 진도 건설을 위한 시급한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며 “인구 감소 대책, 농·수산업 안전 생산 기반 구축 등 핵심 현안을 착실히 추진해 살기 좋은 진도 발전의 토석을 다지겠다”고 강조했다. /양시원·진도=박세권기자

## 여수세계섬박람회 성공 개최 준비 ‘착착’

김영록 지사, 시설·프로그램 현장점검  
교통·숙박 등 관광객 수용 태세 확인



전남도와 여수시, (재)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조직위원회는 지난 22일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부행사장인 여수 금오도와 개도를 찾아 주요 시설 및 관광객 수용 태세를 점검했다. <사진> 김영록 전남지사는 이날 금오도 비렁길과 캠핑장, 개도 섬어촌문화센터 조성 현장 등을 둘러보며 프로그램 운영과 교통·숙박·안전대책 등을 살폈다.

금오도에서는 비렁길 트레킹과 힐링·웰니스, 섬 미식 콘텐츠 등이 운영될 예정으로 특히 음식과 숙박을 연계한 ‘섬 1박 3식’ 프로그램과 ‘섬 힐링밥상’ 참여 업체를 방문해 방문객거리 주조제형과 섬 음식 체험 프로그램 준비 상황도 점검했다.

개도 부행사장은 섬어촌문화센터와 섬섬캠핑장을 중심으로 섬을 직접 느끼고 체험하는 공

간으로 조성하고 있다. 현재 섬어촌문화센터는 공정을 92%로 마감 공사가 진행 중이며 캠핑장과 마녀목공원 등 기반시설 조성도 속도를 내고 있다.

개도에서는 섬섬캠핑과 그래픽티 전시·체험, 예술전시&트레킹, 요가·필라테스 등 힐링 프로그램, 예술의 밤 페스티벌 등 섬의 자연과 예술을 접목한 감성형 콘텐츠가 운영될 계획

이다. 김영록 지사는 “금오도와 개도는 섬박람회 기간 걷고, 쉬고, 체험하면서 섬의 매력을 온전히 느낄 수 있는 공간이 될 것”이라며 “섬마다 가진 자연과 문화, 음식, 예술 등 고유한 특색을 잘 살리고 교통·숙박·안전 등 관광객 불편이 없도록 현장 준비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재정기자

## 광주시, 호우 취약시설 집중 안전점검

내달 26일까지 186곳 대상

광주시는 25일 “다가오는 장마철 및 우기 대비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6월28일까지 지역 건설공사장 및 재난취약시설 186곳을 대상으로 민·관 합동 집중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한 토사 붕괴, 침수 피해에 따른 감전·익사 사고, 강풍으로 인한 시설물 낙하 및 전도 등 여름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안전사고 위험요인을 사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점검의 실효성·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광주시와 자치구는 물론, 국토안전관리원, 민간 전문가 등 관계기관 합동 점검반을 편성해 추진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토사 유출 방지 조치 및 수방장비 확보 관리 상태 ▲시설물의 균열·침하 여부 및 배수설비 유지관리 상태 ▲배수로 정비 상태 및 비닐막 설치 등 우기 대책 강구 여부 ▲배수펌프 및 집수정 관리 상태 등이다. 안전점검 결과, 단순하거나 경미한 사항은 현

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할 계획이다. 즉각적인 보수·보강이나 정밀 안전진단이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추적 관찰하고 위험요소가 완전히 해소할 때까지 지속해 관리를 이어갈 계획이다. /변은진기자

## 전남도립미술관, ‘뮤지엄 나이트’ 운영

전남도립미술관은 25일 “문화가 있는 날 행사의 일환으로 야간 도슨트와 음악공연, 문화체험 등 다채로운 콘텐츠의 ‘뮤지엄 나이트(Museum Night)’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뮤지엄 나이트’는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마다 개관 시간을 오후 9시까지 연장해 평일 낮 시간대 방문이 어려운 직장인과 도민들에게 보다 여유로운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오는 27일 오후 7시 ‘뮤지엄 나이트’ 특별 프로그램으로 서정형 뮤지엄 콘서트 ‘플로리다에서 온 봄의 편지’가 미술관 실내에서 펼쳐진다. /양시원기자

광주매일신문 배려 교통문화 실천운동 캠페인

# 무단횡단 무조건 금지

안전한 실버 한 줄

주야간에 보행하는 어르신들의 안전을 위해 제작한 은색의 반사판 키링

교통신안 대안민국

## 오늘도 무사고

주관 TS 한국교통안전공단 참여기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광주경찰청 전라남도경찰청 광주광역시교육청 전라남도교육청 광주광역시교통문화연구소 전라남도교통연구소 순해보임협회